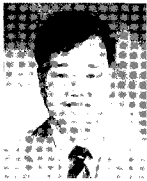


온고지신형 방재를 위하여 - 자연지명에서 배우는 방재



박 경 |

성신여자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kpark97@sungshin.ac.kr



정 대 성 |

국립방재연구소 정보분석센터장
bangaeman@korea.kr



이 원 호 |

국립방재연구소 소장
whyi1208@nema.go.kr



심 재 현 |

국립방재연구소 연구실장
shim1001@nema.go.kr

1. 자연지명과 방재

인간의 생활환경을 구성하는 기본요소로서 자연 환경은 지형이나 물, 대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변화할 뿐만 아니라 침수, 가뭄, 강풍, 해

일, 산사태, 지진 등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인간생활에 피해를 줌으로써 재해가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인간의 거주 및 생활환경에서 오랜 시간 동안 빈번하게 발생해 온 각종 재해현상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선협적 직각은 장소를 인지하고 구별하고자 표시하는 지명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가설이 이 연구의 시발점이 되었다.

지명은 인간과 환경의 교섭에 의해 발생하고, 성장하며, 소멸하는 과정을 거쳐 형성되는 사회구성원들의 공유자산으로 장소에 대한 인간의 사공간적 이미지와 심상부터 생활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해현상에 이르기까지 생활환경 전반에 대한 인간의 인지적 표현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실례로 우리나라 지명의 명명기반을 보면 삶의 터전인 땅의 모양이나 위치, 방향 등은 물론 기후, 지형, 토양 등 자연환경 특성과 변화를 직접적으로 반영한 자연지명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는 특히 지역에서 자주 발생하는 각종 재해현상과 관련한 지명어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는 재해 유형별 관련 지명어를 도출하여 지도 및 문헌, 인터넷 등 각종 자료에 나타난 재해 관련 지명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재해 유형 및 지역별 지명 분석을 통해 재해 발생 가능성과 취약지역 등을 검토함으로써 문화원형에 기초한 방재 대책 수립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범위는 먼저 남한 전역을 대상으로 한 광역

연구로 재해지명 DB를 분석하여 지명과 재해의 관련성 및 경향성을 확인하였고, 제한된 지역을 사례로 지명을 통해 분석한 재해 위험성과 취약성 등을 현장에서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료는 지도류 3종(해동지도, 1872군현도, 오만분일지형도 등)과 문헌자료 2종(지명총람, 신구대조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 등), 인터넷 서비스 자료(지명정보서비스) 등 총 6종을 선정하였으며, 인터넷 자료를 제외한 5종의 자료는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에서 구축한 지명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였다.

2. 재해 지명 DB 구축

제3장의 재해 지명 DB 구축에서는 재해 지명을 추출하기 위해 먼저 재해와 관련성이 있는 재해 지명어를 추출하고 이를 연구 자료에 적용하여 재해 지명을 검색하였고, 마지막으로 DB 체계에 맞추어

재해 지명을 구축하였다.

재해 지명어 추출은 자연재해와 방재 관련 지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재해 지명어는 우리나라에서 발생빈도가 높은 재해 유형을 선정하고, 재해 유형별 발생원인 및 개연성을 내포한 지명어를 추출하였으며, 한자와 한글 지명어를 모두 포함하였다.

재해지명 분류체계는 지구환경 시스템의 구성요소에 따라 대기권, 수권, 암석권, 생물권, 기타로 대분류하고 각 대분류에 해당하는 환경요소들을 중분류 항목으로 선정하였다. 소분류 항목은 각각의 환경요소와 관련된 구체적인 자연재해 유형을 선정하였고, 이들 자연재해와 관련이 깊다고 판단되는 지명어를 최종 재해지명어로 선정하였다. 또한 중분류마다 기타 항목을 두어 추후 항목이 추가될 경우 확장이 용이하도록 설계하였다.

이러한 분류체계에 따라 대기권은 기온, 바람, 기타 항목으로 중분류하여 소분류 7항목, 지명어 36항목이 선정되었고, 수권은 담수, 해수, 얼음, 가뭄 등으로 중분류하여 소분류 10항목, 지명어 47항목, 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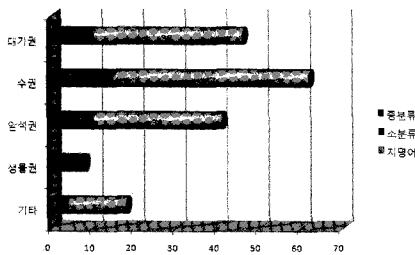


그림 1. 재해 지명어 분류별 항목 수

표 1. 분류별 재해 지명어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명어
대기권(A)	기온(A01)	폭염(A0101)	열, 덥, 서, 온
		냉해(A0102)	한, 찬물, 동, 냉, 빙, 얼음
	바람(A02)	풍해(A0201)	풍, 바람, 돌풍, 태풍, 간풍, 곡풍
		황사(A0202)	황사, 황사
	기타(A99)	벼락(A9901)	진, 벼락, 번개, 전, 천둥, 뇌, 우레, 우레, 뇌우
		안개(A9902)	무, 안개, 이내, 로, 이슬
		화재(A9903)	화, 큰불, 작은불, 불탄
수권(H)	담수(H01)	침수(H0101)	수, 큰물, 작은물, 수해, 수재, 합수, 합강, 양수, 합천, 합내, 합계, 합포, 물미, 물도리, 물넘이, 물탕, 드르니
		폭우(H0102)	홍수, 홍수, 흥, 우, 큰비, 작은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명어
수권(H)	해수(H02)	해일(H0201)	팔, 랑, 파랑, 파도
		염해(H0202)	염, 소금, 짘물
		조해(H0203)	조, 사리
	얼음(H03)	설해(H0301)	설, 눈, 큰눈, 작은눈, 설피, 설해
		우박(H0302)	우박
		서리(H0303)	상, 서리
	가뭄(H04)	한해(H0401)	한, 건, 가뭄, 가물, 마른, 한발
기타(H99)	기타(H9901)		
암석권(L)	지각운동(L01)	지진(L0101)	
	화산운동(L02)	화산(L0201)	
	mass movement(L03)	산사태(L0301)	사태, 사태
		낙석(L0302)	낙석, 낙, 애, 낭떠러지, 벼랑, 절벽
		침수지형(L0303)	범, 람, 탄, 어울, 늪, 濕, 둔덕, 버덩, 두들, 두둑, 沈, 陷, 물, 구렁, 구렁, 둠벙, 수렁, 야, 원, 일
	기타(L99)	기타(L9901)	沙, 砂, 풍혈
생물권(B)	동식물(B01)	병충해(B0101)	
		전염병(B0102)	
		호환(B0103)	
		적조(B0104)	
	기타(B99)	기타(B9901)	
기타(O)	방재(O01)	방재(O0101)	언, 재, 방, 보, 축, 방죽, 방축, 뚝, 뚝
	기타(O99)	기타(O9901)	재, 해, 양, 피, 난

석권은 지각운동, 화산운동, 지형변화로 중분류하여 소분류 6항목, 지명어 31항목을 선정하였으며, 기타로 방재와 관련하여 소분류 2항목, 지명어 14항목이 선정되어 재해 지명어는 총 128개로 선정되었다.

3. 재해 지명 DB 분석

재해 지명 DB 분석은 DB로 구축된 재해 지명에 대해 각 자료원별과 지역별·재해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표 2. 재해 지명의 자료별·유형별 분포

	대기권	수 권	암석권	기 타
해동지도	307	677	520	379
1872군현도	465	1,130	896	903
오만분일지형도	514	1,690	1,265	521
지명총람	3,222	7,948	6,746	12,293
신구대조	89	378	340	98
지명정보서비스	62	48	65	185

연구에 활용된 6종의 자료에서 추출, DB로 구축된 전체 재해관련 지명은 총 40,905개로 자료별로는 지명총람이 30,209개로 가장 많아 전체 지명의 73.9%를 점유하였고, 그 다음으로 오만분일지형도 3,990개, 1872군현도 3,518개, 해 동지도 1,923개, 신구대조동명칭일람 905개, 지명정보서비스 360개 순으로 나타났다.

〈표3〉은 구축된 전체 DB 가운데 수권의 침수와 폭우와 관련된 내용과 암석권 가운데 지형변화와 관련된 내용과 더불어 기타 지명들 가운데 방재적 내용과 관련된 내용의 항목만 추려 전체 자료원별로 분류한 내용이다.

DB로 구축된 전체 재해관련 지명의 유형별 분포는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 및 방재와 관련한 지명이 14,379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침수·폭우·해일·염해·가뭄 등의 수권과 관련된 지명이 11,871개, 산사태·낙석·침수지형 등의 암석권 관련 지명이 9,832개, 폭염·냉해·풍해·벼락·화재 등



표 3. 재해 지명의 자료별·유형별 통계

종분류	소분류	지명어	해동지도	1872군현도	오만분일	신구대조	지명총람	지명정보서비스	계
담수(H01)	침수(H0101)	-01수	436	775	1270	295	5489	0	8265
		-02큰물	0	0	0	0	31	1	32
		-03작은물	0	0	0	0	12	0	12
		-04수해	0	0	0	0	0	1	1
		-05수채	0	0	0	0	7	0	7
		-06합수	1	1	1	1	57	6	67
		-07합강	2	7	5	5	25	10	54
		-08양수	6	5	5	2	64	4	86
		-09합천	1	4	3	1	17	4	30
		-10합내	0	0	0	0	1	1	2
		-11합계	0	0	0	0	1	0	1
		-12합포	2	1	0	0	4	0	7
		-13물미	0	0	0	0	41	3	44
		-14물도리	0	0	0	0	1	2	3
		-15물넘이	0	0	0	0	3	2	5
		-16물탕	0	0	0	0	234	1	235
		-17드르니	0	0	0	0	7	1	8
	폭우(H0102)	-01홍수	0	1	0	0	1	0	2
		-02홍수	0	0	0	0	22	0	22
		-03홍	31	53	69	16	200	0	369
		-04우	13	53	42	8	116	0	232
		-05큰비	0	0	0	0	4	0	4
		-06작은비	0	0	0	0	9	0	9
산사태 (L0301)	-01사태	1	1	3	1	7	0	13	
	-02사태	0	0	0	0	115	9	124	
낙석(L0302)	-01낙석	0	0	0	0	2	0	2	
	-02낙	37	27	17	0	108	0	189	
	-03애	8	18	10	0	53	0	89	
	-04낭떠러지	0	0	0	0	15	1	16	
	-05벼랑	0	0	0	0	12	2	14	
	-06절벽	1	3	0	0	6	0	10	
지형변화 (L03)	침수지형 (L0303)	-01범	0	1	0	0	3	0	4
		-02람	0	0	1	0	2	0	3
		-03탄	119	186	146	37	377	0	865
		-04여울	0	0	0	0	447	16	463
		-05늪	0	0	0	0	321	13	334
		-06습	0	2	2	0	8	0	12
		-07둔덕	7	15	20	4	86	4	136
		-08버덩	0	0	0	0	231	4	235
		-09두돌	0	0	0	0	35	0	35
		-10두독	0	0	0	0	99	5	104
		-11침	0	3	5	0	24	0	32
		-12함	2	0	0	0	3	0	5
		-13물	3	6	6	1	28	0	44
		-14구렁	0	0	0	0	759	6	765

중분류	소분류	지명어	해동지도	1872군현도	오만분일	신구대조	지명총람	지명정보서비스	계
		-15구명	0	0	0	0	57	0	57
		-16돛병	0	0	0	0	960	2	962
		-17수령	0	0	0	0	86	1	87
		-18야	40	124	130	41	540	0	875
		-19원	60	74	70	30	270	0	504
		-20일	0	0	1	2	0	0	3
기타(L99)		-01사	237	428	823	218	1914	0	3620
		-02사	1	5	30	6	170	0	212
		-03풍혈	4	3	1	0	8	1	17
방재(O01)		-01언	71	146	18	4	134	0	373
		-02제	206	358	173	37	2809	0	3583
		-03방	62	223	113	25	977	0	1400
		-04보	0	32	50	9	2129	0	2220
		-05축	15	63	73	3	259	0	413
		-06방죽	0	3	2	0	3517	60	3582
		-07방축	10	52	80	17	470	99	728
		-08뚝	0	0	0	1	845	13	859
		-09뚝	0	0	0	0	1060	13	1073
기타(O99)		-01재	1	0	1	0	7	0	9
		-02해	7	20	0	0	2	0	29
		-03양	0	0	0	0	0	0	0
		-04피	3	3	9	2	46	0	63
		-05난	4	3	2	0	38	0	47

의 대기권과 관련된 지명이 4,659개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방재관련 지명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이는 것은 제·언·방·보·축 등의 한자지명과 더불어 방죽·방축·뚝·뚝 등의 한글지명의 분포가 많았을 뿐 아니라 또한 한자와 한글에서 모두 검색되는 지명이 상당수 있었으며, 또한 모든 자료에서 수권과 암석권의 재해관련 지명 빈도가 높았는데 이는 수권의 수 지명과 암석권의 사 지명의 점유율이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수와 사 지명을 제외하면 대기권 및 암석권과 관련한 지명이 상대적으로 높게 분포하였는데 특히 침수 재해와 관련한 지명이 가장 탁월하고 폭넓게 나타났으며, 그 외에도 풍해, 냉해, 벼락, 화재, 해일, 설해, 가뭄 등의 재해와 관련한 지명 빈도와 지역적 분포 차이도 주목된다.

해동지도의 재해지명은 유형별로 대기권 307개, 수권 677개, 암석권 520개, 기타 379개였는데 특히 눈·비·서리·안개·우박·가뭄 등 불과 관련한

지명이 35.2%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지역별로는 경상도 415개, 전라도 369개, 경기도 362개로 높은 비중을 보인 반면 충청도,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강원도 등은 10% 이하의 비중을 보였다.

1872년 군현도의 재해지명은 유형별로 수권 1,130개, 기타 903개, 암석권 896개, 대기권 465개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충청도와 전라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인 반면 경상도와 경기도 등 나머지 도들은 10% 내외였다.

오만분일지형도의 재해지명은 수권 1,690개, 암석권 1,265개, 기타 521개, 대기권 514개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전남 657개, 경기 634개, 경북 567개, 충남 523개, 전북 478개, 강원 425개, 경남 342개, 충북 289개, 제주 75개로 나타났는데 특히 전남에서 풍, 한, 야 등의 빈도가 높았던 반면 경기도에서는 화, 설, 탄 등의 비중이 높아 지역적 분포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지명총람의 재해지명은 유형별로 기타 12,293

개, 수권 7,948개, 암석권 6,746개, 대기권 3,222개였으며, 특히 방재와 관련한 기타지명이 많은 것은 지명총람이 한자와 한글지명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서 같은 방재지명이 중복 검색되었기 때문이며, 또한 수지명을 제외하면 암석권, 대기권, 수권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 역시 벵텡, 구렁, 구덩, 둌병, 수령 등 침수와 관련된 한글지명의 분포가 많았던 데 기인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전남 6,922개, 경북 4,626개, 전북 4,270개, 경기 3,657개, 경남 3,507개, 충남 3,325개, 충북 1,963개, 강원 1,633개, 제주 306개로 나타났으며, 도별로 탁월한 분포를 보이는 재해지명을 보면 전남의 경우, 풍과 바람, 염, 구렁과 둌병, 제, 보, 방죽 등의 빈도가 높은 반면 경기도는 냇, 벼락, 탄, 여울 등의 빈도가 높아 지역별 분포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신구대조동명칭일람의 재해지명은 유형별로 수권 378개, 암석권 340개, 기타 98개, 대기권 89개였으며, 지역별로는 경기 159개, 경북 136개, 전남 133개, 경남 101개, 충남 100개, 강원 94개, 충북 89개, 전북 81개, 제주 12개로 나타났다.

지명정보서비스의 재해지명 중에는 기타 지명이 185개, 암석권 65개, 대기권 62개, 수권 48개로 나타났으며, 지역적으로는 충남이 77개, 전남 62개, 경기 55개, 강원 46개, 경북 39개, 충북 37개, 전북 26개, 경남 17개, 제주 1개로 나타났다.

4. 현장 사례를 이용한 유용성 검토

충청남도를 흐르는 미호천의 상류인 병천천은 수차례에 걸쳐 범람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특히 2006년의 경우 병천천 유역에 50mm 정도의 소량의 강수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범람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지명에서 병천(아우내)와 같은 합수지명이 나타났다. 미호천을 따라 강내(江內)와 강외(江外) 등

재해관련 지명이 다수 출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충남 연기군의 재해관련 지명은 모두 93개가 확인되었는데 유형별로는 암석권 34개, 기타 27개, 수권 21개, 대기권 11개였고, 지역별로는 면 단위 확인이 어려운 45개 외에 남면 18개, 전동면 12개, 금남면과 조치원읍 각각 5개, 서면 4개, 동면 3개, 전의면 1개로 나타나 군의 북부 권역에 비해 금강과 미호천이 관통하는 중부 이남의 남동 권역을 중심으로 재해지명의 분포가 높았다.

특히 水와 灘, 여울, 구렁 등은 침수와 관련된 지명 분포가 탁월하였고, 堰, 防 등 간접적이지만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는 방재관련 지명도 많았으며, 특히 침수와 관련한 재해 지명어들이 금강과 미호천 유역에서 많이 발견되어 지역의 지형환경 특성이 지명에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강 주변의 평야는 범람원(flood plain)이 분포하고 있어, 큰 비가 내릴 때는 침수를 면치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의 기록들을 보면 우리나라에 대홍수가 발생한 것은 1925년, 1936년, 1948년, 1959년, 1972년, 1984년, 1990년, 2002년 등 대체로 10~12년을 주기로 발생하고 있다. 과거에 홍수로 인해 한강주변에서 범람이 되었던 지역들은 때에 따라서 많은 변동이 있었으나, 1940년대 이후로 한강의 개수로 인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소양강 댐과 충주 댐 등이 완공된 이후인 1985년 이후로는 한강이 둔치가 잠기는 정도의 경계수위의 홍수에 대해서는 조절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권희재, 2001).

여름철 한강의 수위가 올라가고 홍수가 나는 것을 자연재해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홍수는 자연현상의 하나로서 나쁜 것만은 아니며, 과거 농경시대에는 양분과 미립질 물질을 공급하는 필수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였다. 오늘날 하천의 오염이 극심한 현실조건에서 홍수는 하천의 물과 하상의 퇴적물을 갈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아래 <그림 2>에 점으로 표기된 지역들은 1910년대 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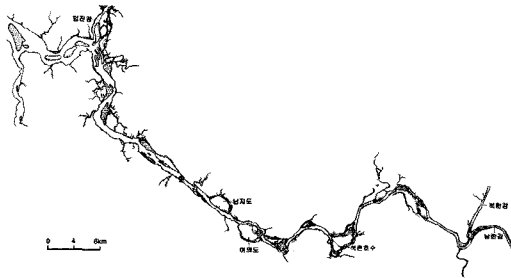


그림 2. 1910년대 양수리부터 한강하구까지 한강의 유로를 복원한 그림

도와 현재 지형도를 비교하여 복원한 것으로, 양수리부터 한강 하구에 이르기까지 한강의 하도 내에 존재하던 사력질로 구성된 모래톱이나 하중도 그리고 뿔로 구성된 지형들이다.

이렇듯이 서울을 관통하는 한강은 과거 홍수가 자주 발생하였고, 홍수의 흔적은 지형 뿐 아니라 DB를 통해 구축된 재해지명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림 3>의 김포지역에 나타나는 벌말이라 불리는 상야리와 하야리 주변은 1925년 을축년 대홍수에 범람하였고, 신곡양수장이 대규모로 증축된 이후인 1984년에도 범람하였으며, 지도면 내곡리의 섬말(島村)은 자연제방에 발달한 지명이며, 이 외에도 한강 유역에서 발견되는 토평리, 수석리, 수택리, 석도(石島), 석탄리, 후평리, 하사리, 도사리, 수참리 등의 지명은 침수와 관련된 재해지명으로 확인되고 있다.

5. 결론 및 추후 연구 방향

지금까지의 연구 내용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해 관련 지명의 지역적 분포를 통해 위도·해안과 내륙·산지와 평지 등 지역의 자연 환경적 기반이 지명에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환경지각의 산물인 재해 지명의 경우를 보면 이들 간에도 지역성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한 사례로, 지명총람에서 각 도별로 탁월한 분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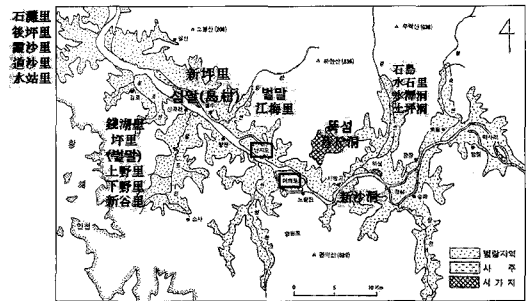


그림 3. 을축년 홍수 당시 한강하류 홍수범람 지역과 지명

보이는 재해 관련 지명을 보면 지명 개체수가 가장 많은 전남의 경우, 풍과 바람, 염, 구렁과 돛병, 제, 보, 방죽 등의 빈도가 높은 반면 경기도의 경우 냉, 벼락, 탄, 여울 등의 지명빈도가 높아 지역별로 재해관련 지명의 분포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지명과 재해와의 관련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성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가뭄지수나 강수량 등의 기상자료 비교 분석이 있을 수 있고, 재해 발생 지역 및 침수흔적도, 상습 수해지구 등과 재해 지명의 분포 등을 비교 분석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또한 역으로 주민들의 바람을 반영하는 지명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즉 물이 귀한 곳에서 물의 풍요로움을 바라는 지명을 붙이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지명의 기원이나 촌로들과의 인터뷰를 통한 정성적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넷째, 방언이나 고어 등에 대한 연구 및 보강이 필요하다. 제주도 지역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재



그림 4. 현재의 여의도·밤섬 일대를 보여주는 일제강점기의 1:50,000 지형도



해 관련 지명의 수가 현저히 적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바람을 '보름', 모래를 '모살', 가뭄을 '고뭍'으로 부르는 등 제주 지역에서만 사용되는 독특한 제주어의 영향으로 본 연구에서 선정한 재해 관련 지명어와 제주 지역에서 사용하는 같은 의미의 단어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언어의 지역색이 강한 지역의 경우는 추후 해당 지역별로 재해 관련 지명어를 새로이 정리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한글 지명에 대한 어휘와 어의(語意) 확인이 필요하다. 하나의 지명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한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 '두둑'은 '흙으로 쌓아 올린 언덕'의 의미를 내포할 뿐만 아니라

'들'을 의미하기도 한다.

여섯째, 재해 관련 지명어의 재검토와 보강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데이터베이스의 재정비와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림 4>에 나타난 것처럼 현재 밤섬으로 알려진 서울의 울도(栗嶋)와 여의도(汝矣嶋)에 나타난 도(嶋)는 현재 많이 사용되는 한자어이지만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지명어에 대한 지속적인 고찰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시·군별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 지명 유래를 비롯하여 공간좌표 정보 등에 대한 DB 내용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1. 김선희(2008). "오만분일지형도에 나타난 20세기 초 한반도의 지명 분포와 특성," 대한지리학회지 제43권 제1호, pp.87-103.
2. 김연옥(1986). "한국의 기후지명에 관한 연구," 논총 49,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59-290.
3. 김운학(1996). 땅이름 연구, 박이정출판사.
4. 김종혁(2009). "구한말 한반도 지형도』에 수록된 지명의 유형 분포," 문화역사지리, 21(2), pp.58-75.
5. 도수희(2003). 한국의 지명, 아카넷.
6. 박경·장은미(2005). "한강하류에 대한 지형학적, 지도학적 고찰," 지리학연구, 39(4), pp. 459-468.
7. 방방재청(2009). 재난관리 60년사.
8. 조강봉(2002). 강·하천의 합류처와 분기처의 지명 연구.
9. 조선총독부(1928). 朝鮮の災害.
10. 한국방재협회 부설 방재연수원(2007). 재난관리론.
11. 한글학회(1991). 한국 땅이름 큰 사전.
12. 행정자치부 국립방재연구소(2003). 우리나라 자연재해 발생추이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I) -풍수해 장기대응을 중심으로-.
13. Tuan, Yi-Fu(1991). Language and the Making of Place: A Narrative-Descriptive Approach,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81(4), 684-696.
14.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http://krcr.korea.ac.kr/>)
15. 국토지리정보원 (<http://www.ngi.go.kr/>)